

다시, 생태산업개발분야 장관 표창 수상

‘2024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서 생태산업개발분야 공로 단체 유공 포상

전주시는 상림동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원순환기업인 주식회사 다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서 생태산업개발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단체

포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은 자원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유공 포상 시상식으로, △청정생산분야 △생태산업개발분야 △순환경제분야의 총

3개 분야의 포상이 이뤄졌다. (주)다시는 오염물로 배출되거나 낮은 비용에 매입되던 폐유를 자원으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폐기물 감축 성과(4만12600톤/3년) △기업의 매출 증대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직접고용 5

명/3년) △온실가스 연간 감축 예상량(30t CO2eq/년)의 개선 기대 성과 △재자원화된 원료의 수출 실적 등으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산업개발 사업화 기여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와 관련 생태산업개발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부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활동으로, 최근 순환 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종현 (주)다시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기업이 추구해 온 환경보호와 친환경,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결실”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의 재활용 요구에 따른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의 사업화 기반으로서 자원순환과 순환 경제,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지역단위 자원순환망 구축을 위한 환경부의 국가 공모사업인 ‘폐자원 순환 시범도시사업’을 통해 2013년 상림동에 약 8만㎡ 규모로 조성됐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상림동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원순환기업인 주식회사 다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서 생태산업개발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단체 포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전주농협, 도농상생 한마음 지원자금 1000만원 전달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농촌 지역과 도시 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4일 순창동계농협(조합장 양준섭)을 방문하여 도농상생 한마음 지원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도농상생 한마음 지원자금은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달식에는 전주농협과 순창동계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다짐하며 도농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전달식에서 “도농 간 상생협력은 농협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특용작물, 스마트팜으로 날개 단다’

농진청, 특용작물 스마트팜 생산 표준화 연구동 준공 행사·학술 토론회

주로 노지에서 재배해 온 특용작물도 스마트팜에서 재배할 수 있게 하는 연구가 본격화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충북 음성)에 ‘특용작물 스마트팜 생산 표준화 연구동’을 구축, 4일 준공 행사와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생산자 단체, 산업체, 대학 등 20여 개 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석했다.

1부 준공 행사에서는 스마트팜 생산 표준화 연구동 운영 시연과 현재 수행 중인 약용작물 유망 품목의 최적 생육 모형 개발, 생산 체계 구축 연구 현황,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2부 학술 토론회에서는 각 기관 전문가가 특용작물 스마트팜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이정삼 과장은 ‘국내 스마트농업 정책과 전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마트팜융합연구센터 김상민 센터장은 ‘스마트팜 산업 동향 및 우수 사례’ △제주대학교 원예환경전공 조영열 교수는 ‘시설재배 모델 구축 연구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특용작물 스마트팜 생산 표준화 연구동은 총면적 1,402㎡에 지상 2층 규모로 온도와 습도, 인공광(LED), 양액 공급 등을 통해 특용작물의 재배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김옥기기자

전주상의, 근로기준법 반영,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실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4일 전주상의 대회의실에서 회원업체 총무·회계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나토안 세무노무 컨설팅 대표 김경하 세무/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 이해와 사전 준비 및 마무리 절차를 시작으로 기초 과징부터 탄탄히 하여 기본이론을 습득한 뒤 근로소득의 개요, 연말정산 세액계산 등 서식 작성 활동을 통해 실무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연말정산 실무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습득하여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일 여의도 백리향에서 2024 제5차 원로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로위원회는 2019년 5월 출범한 중소기업중앙회 특별위원회로 전·현직 중소기업협동조합 원로 이사장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년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자문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국회, 정



원주 고산농협은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개최된 2024년 지도사업 선도농협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 만들 것”

고산농협, 2024년 지도사업 선도농협상 수상

원주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은 지난 3일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개최된 2024년 지도사업 선도농협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도사업 저변확대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마련된 '지도사업 선도농협상'은 전국 1,111개 농·축협 중 지도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복지향상을 위해 훈신의 힘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영농지도 및 농촌복지 지원을 통해 조합원이 행복한 농협,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고산농협은 기계정식으로 신 재배기술의 보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농작



중소기업중앙회, ‘제5차 원로위원회 정기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일 여의도 백리향에서 2024 제5차 원로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로위원회는 2019년 5월 출범한 중소기업중앙회 특별위원회로 전·현직 중소기업협동조합 원로 이사장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년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자문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국회, 정

부와 소통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위해 2025년 을사년에도 중소기업계 원로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혁홍 원로위원장은 “원로위원회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한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만큼 중소기업중앙회에 힘을 보태 여러 정책 현안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고, 사회공헌에도 앞장서 후배 중소기업인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